“‘소유냐 존재냐’ 행복에 대한 가치관 바꿔놔”

명사의 서재

14 강수돌 고려대 교수

소유에 대한 집착보다 존재의 아름다움 눈 떠

마을이장 맡아 지역민과 함께 ‘공동체의 삶’

지난 27일 광주여성재단 북카페 ‘은새암’에서 만난 그는하얀 턱수염에 이제 막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한 머리, 그리고 전체적인 복장에서 조금은 세련된 ‘시골 아저씨’ 분위기를 풍겼다.

서울과 독일에서 공부하고 미국과 캐나다 등을 거쳐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그에게 이제는 시골 생활이 더 익숙한 모양이다.

경영학을 ‘돈의 학문’이 아닌 ‘삶의 학문’으로 가르치는 고려대 세종캠퍼스 경영학부 강수돌(52) 교수. 그는 교수보다 충남 연기군 조치원 신안1리 이장으로 더 유명하다. 강 교수는 이날 광주여성재단에서 열린 ‘삶을 위한 경제’ 특강을 위해 광주를 찾았다.

지난 1997년 고려대 세종캠퍼스 교수로 부임한 그는 이듬해 학교 인근 이 마을에 흙으로 된 작은 집을 짓고, 아내, 세 딸과 함께 자연을 벗삼아 생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2005년 고층 아파트 건설 반대 운동을 펼치면서 마을 이장으로 추대돼 지난 2010년까지 일했다. 현재는 마을 구성원으로 주민들과 생활하고 있다.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생태적인 삶에 반했습니다. 그들은 빗물 등 작은 것조차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어요. 특히 지도 교수님이 직접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때 많은 것을 배웠고, 저도 그 같은 삶을 꿈꿨어요.”

‘당신이 앉아 있는 나뭇가지를 스스로 톱질하지 말아라.’ 강 교수가 독일 유학 중에 배운 가르침 중 하나다. 우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이웃, 정, 공동체, 생명 등 정작 중요한 가치들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경고다.

그는 대학교 1~2학년 때 읽었던 독일 철학자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가 오늘날 자신을 시골 생활로 이끌었고, ‘화폐’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고 말했다. 이 책은 지금까지도 강 교수에게 이론이나 실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 삶에서 소유 양식은 부와 지식, 명예, 권력 등이고, 존재 양식은 본인 스스로의 삶을 묻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가치, 내가 왜 존재해야하느냐, 매 순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를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존재 양식을 따라야 합니다. 제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조금 미뤄도, 오늘의 행복만은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강 교수가 조치원에서 가장 힘을 쏟았던 것은 ‘공동체’를 꾸리는 일이다. 그는 그곳에서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를 보다 넓게 보게 됐고, 경쟁보다 연대와 협동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 문화 공동체’ 꾸리기를 목표로 마을회관에서 글쓰기 교실을 진행했고, 두 차례에 걸쳐 마을 축제를 열기도 했다. 그의 제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주민들과 함께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했다. 최근에도 마을 도서관을 만들었고,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로 다양한 공동체 사업에 나서고 있다.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라는 책은 그가 시골에 대한 두려움을 빨리 극복하고 뿌리를 내리게 된 계기가 됐다. 그리고 시골 생활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고 한다. 이 책은 헬렌 니어링이 경제학자인 남편 스코트 니어링과 가난한 뉴욕 생활을 청산하고, 버몬트 숲에서 보낸 반세기의 삶을 회고한 책이다.

“죽을 무렵 남편 스코트 니어링이 ‘옷을 입은 채로 나무 밑에 묻어달라. 아무도 슬퍼 말라’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현대 과학이나 의료 체계에 대한 거부감을 느꼈어요. 오늘날 보험 종류가 다양해진 것은 그만큼 위험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조화로운 삶이 무엇인지, 행복한 마무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위하는 사회,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됐으면 해요. 모든 것이 통하는 지하수 같은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미술관 옆 비엔날레

지난 2006 광주비엔날레 출품작 송동(중국)의 ‘버릴 것 없는’을 본 관객들은 ‘멘붕’(멘탈붕괴)에 빠졌다. 현대미술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전시장에 펼쳐진 잡동사니들이 너무나 ‘허접’(?)했기 때문이다. 말이 예술이지 재활용 박스에 내다 버릴 법한 폐품들이었다. ‘버릴 것 없는’은 작가의 어머니가 30여 년간 모아온 ‘세간살이 컬렉션’. 작가는 어머니의 삶의 궤적을 통해 급속하게 사라져 가는 중국사회의 전통 정서를 들추어냈다. ‘버릴 것…’은 예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며 그해 비엔날레 공동 대상작으로 뽑혔다.

지난 주말 2013 광주 디자인비엔날레와 시립미술관으로 ‘문화마실’을 다녀왔다. 중외공원을 끼고 이웃해 있는 두 공간은 새삼 예술과 일상,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를 되돌아 보게했다.

그중에서도 시립미술관의 기획전 ‘만물상-사물에서 존재로’(9월3~11월10일)는 비엔날레를 통해 예술적 역량을 키운 젊은 작가, 일명 ‘비엔날레 키드’들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일상의 평범한 사물들을 모아 놓은 전시는 비예술적인 사물들이 현대미술의 오브제로 변신하는 과정을 담아냈다. 철사나 컴퓨터 부품을 재활용한 신양호의 ‘Red fish’는 바다에서 막 건져올린 활어를 보는 듯 했고, 칙칙한 폐비닐 위에 한땀 한땀 바느질로 사물을 새겨 넣은 마C의 ‘연두 그늘’은 거칠지만 따뜻한 감성이 묻어났다. 고근호·정운학·이매리 등 다른 작가들의 작업 또한 독창적인 조형미가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건 관객들의 태도였다. 한낱 ‘쓰레기’ 같지만 기발한 상상력으로 되살아난 ‘오브제’들에게 홀린 듯한 표정이었다. 지난 2006년 송동의 ‘버릴 것 없는’에 반응했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디자인 비엔날레 관람 후 미술관에 들른 전시기획자들은 광주 작가들의 완성도 높은 작품에 찬사를 보냈다. 김홍희 서울시립미술관장은 ‘만물상…’전의 내년 서울 전시를 제안했고, 외국 큐레이터들도 “원더풀”을 연발했다.

미술관을 나서자 비엔날레를 관람하러 온 학생들이 유독 눈에 많이 띄었다. 사실 그동안 비엔날레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목소리에 눌려 적지 않은 마음고생을 해왔다. 매번 80억~1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정작 ‘지역’에 남는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비엔날레 키드들을 보면 그렇게 밑진 장사는 아닌 것 같다.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한 비엔날레 키드와 예술적 안목을 키워온 관객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진 ‘성과’이기 때문이다.

〈편집국 부국장·문화선임기자〉

‘스코치 앤 소파’

콘서트와 영화를 한곳에서…

‘음악으로 통한다’ 6일 광주극장

프랑스 음악인들을 만나고 음악영화도 관람하고.

광주프랑스문화원(원장 최승은)과 광주극장이 200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음악으로 통한다’에는 지금까지 재즈, 샹송 등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다녀갔고, ‘원스’ ‘사랑은 비를 타고’ 등을 관람했다.

2013년 ‘음악으로 통한다’는 오는 6일 오후 4시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올해 초대 손님은 듀오 ‘스코치 앤 소파’. 프랑스 샹송 가수 끌로에와 기타리스트이자 비트박서인 로망으로 구성된 이 그룹은 끌로에의 파스텔톤 목소리와 로망의 독특한 핑거링 주법과 비트박스를 통해 리듬감 있고 짜임새 있는 음악을 들려준다.

이 날 공연에서는 자작곡 ‘너의 좋은 향기’ 및 국내 음악팬들이 좋아하는 ‘마이 퍼니 발렌타인’, 에디뜨 피아프의 곡으로 많이 알려진 ‘장밋빛 인생’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함께 볼 영화는 버스킹 밴드에서 전세계의 음악팬들을 사로잡은 최고의 라이브 밴드로 우뚝 선 이들의 성공신화를 그린 영화 ‘벤다 빌릴라’다.

연주는 오후 4시부터 80분간 진행되며 휴식 후 오후 6시부터 영화를 상영한다. 휴식시간에는 극장 2층에서 싸인회가 이루어지며 간단한 간식, 차, 와인 등이 구비되어 있는 매점을 이용할 수 있다.티켓 1만 5000원(현매), 2만원.(당일 구입시) 문의 062-224-5858. 062-527-2500.

/김미은기자 mekim@

지역문화교류재단 오늘 ‘남도 음식’ 심포지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광주교육대 역사문화교육연구소, 조선대 인문학연구원과 공동으로 2일 오후 3시 조선대 중앙도서관에서 ‘남도의 음식과 문명’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학술심포지엄은 김성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의 사회로, 제1주제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20세기 한국음식사와 시대구분’, 제2주제 송수권 한국풍류문화연구소 소장의 ‘남도의 식탁에 흐르는 풍류정신’, 제3주제 박종찬 광주대 교수의 ‘남도음식의 세계화’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남도의 음식과 문화, 어떻게 계승 발전 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김덕진 광주교육대 교수, 한예원 조선대 교수, 김정희 시인이 토론을 벌인다.

문의 062-234-2727.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